

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15일까지 신청...만18세 이상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총 50대, 가구당 1대...관내 판매점 구입 한해 지원

나주시가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 지원한다. 총 50대 분량으로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

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가구당 1인에 한해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보조(PAS) 전용 방식의 150만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 작동',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작동 금지', '자전거 총중량 30kg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나주시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본 당첨자 50명, 예비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 당첨자 서류 탈락 및 포기 시에는 예비 당첨자에게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증빙서류를 시청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팀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가 출·퇴근을 비롯해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 정착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대기환경 개선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직원들과 소통 위한 이색 이벤트 운영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정례조화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전달하는 이색 이벤트를 개최했다. 김 군수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군정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정례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정례조회 시간에 커피를 손에 든 직원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았다"며, "군수님, 부군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전 직원 이 모이는 정례조회를 활용해 각종 문화공연, 유명 강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꽃과 빛의 향연 장성 황룡강 낭만 가득"

100억 송이 봄꽃과 수려한 야경을 지닌 장성 황룡강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장성 황룡강 洪(홍)길동무 꽃길축제(이하 길동무 꽃길축제)'에서 그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지난 19~29일 열린 길동무 꽃길축제는 강변 10리 길을 물결인 봄꽃과 환상적인 야간 조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꽃 예션 강가를 화사하게 장식한 꽃양귀비가 인상적이었다. 장미, 백일홍, 사스타 데이지 등이 풍성한 서삼장미터널과 생태공원 수국터널은 사진촬영 명소로 꼽혔다.

해가 기울고 나면 강변 곳곳에 조명이 켜졌다. 특히 미디어 조명이 설치된 문화대교와 용작교 아래 조형물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가을 조성한 종합운동장 플라워터널과 함께 '황룡강 야경 3부작'을 완성했다.

봄꽃과 야경을 고루 갖추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방문이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 누적 방문객 수는 22만 7000여 명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막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수익만 1억 6900만 원에 달했다.

'체험'도 호평을 얻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마련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여행 코스로 입소문이 나며 축제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첫날 500명으로 시작했던 방문객 수가 마지막 날에는 하루 4100명까지 늘었다.

한편, 축제와 함께 뜻깊은 행사도 열려 이목을 끌었다. 1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도음식영화토크쇼'가 개최됐다. 황혜립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주영하 음식 인문학자, 김현진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이 음식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상영회와 대담을 가졌다.

장성=김수권기자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곡성군이 지난 2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실과

장,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용역 최종 보고회 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행정,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3년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행복한 곡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인구활력 증진·지역일자리 창출·지역인재 양성·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전전략을 세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러스티타운 고도화사업, 곡성형 유학마을 조성 등 38개의 핵심·중점 사업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담양군문화재단, 경영혁신 조직 운영 발전방안 보고회 개최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재단의 경영혁신과 조직 운영 발전방안을 위한 보고회를 6월 7일 14시 죽녹원 율포관에서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지역 문화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자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운영 혁신을 위한 10명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조직은 재단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재단 임직원들과 지역의 예술인 및 관련 단체의 인터뷰, 6차례의 조사 분석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재단의 사업 및 공간 현황 분석, 조직발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수립, 조직체계 개선(안), 인사노무 분야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협치와 재단의 역할, 전략 과제별 발전방안 등을 제시한다.

보고회는 문화예술 활동가, 문화예술단체 외에도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분야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70-4493-3479)으로 사전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당초 재단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문화생태도시조성사업 등 국가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이후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행된다"며 "재단의 순수사업과 조직 운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고인돌축제 추진 유공자 표창

'2023 화순고인돌축제' 성공 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표창

화순군이 1일 정례 조화에서 '2023 화순 고인돌 축제'의 성공 개최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이번 축제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단체 3개소(화순군 가족센터,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도곡 방울토마토 공선회)에는 감사패를, 민간인 9명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였다.(민간인 표창 수여자 9명 : 정성덕 대한적십

자사 화순지구협의회회장, 정중문 테마파크 소풍대표, 조보의 주암조경 대표, 최삼재 산림사업 유공자, 박인숙 화순 다육 연합회장, 윤예주 화순 야생화협회회장, 심혜순 춘양면 부녀회 회원, 김용희 도곡면 청년회 회원, 손홍규 이서면 번영회장)

또한 이날 조화에서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공직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환경과 소속의 임병호 공무원으로, 지난 5월 17일 한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화재 발생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화재진화에 성공,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큰 공로를 세웠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